

만남

06

2018

통권 533호

특별기획 | 전교인 전도에 나서다

특집 | 나라 섬김과 교회 역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연한 새순’ 같은 저 눈길, 무엇을 바라보는 눈길일까? ‘저 높은 곳’을 향한 저 손길, 무슨 은혜를 사모하는 손길일까? ‘애들아 저기야!’ 소리치며,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 ‘야곱의 시대’를 두 손 높이 들어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 지난 5월 5일(토), 베다니홀과 드림홀에서 열린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중에서

만남

2018년 6월호 통권 533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6.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사진 유승현 기자

표지설명

'양의문'을 상징하는
백석의 전작은 문이
영락교회 역사와
묵묵히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유승현 기자

이달의 말씀 02 • 오빠생각 | 김운성

특별기획 04 •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전교인 전도에 나서다 | 김보희·양순명·김옥엽·유승현·이산·김형선·박상엽·박남진

특집 나라 섬김과 교회 역사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2 • 영적 간신을 통한 민족복음화, 영락교회의 사명 | 김태균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6 • 큰 두 계명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 박재현



영락지금 20 • 찬양을 통해 남과 북을 잇는 아름다운 음악인,
이슬기 청년을 만나다 | 우대권·목진경·오승현

너 웬찮아? 23 • 꿈꾸는 노인과 별을 쫓는 청년 | 이희철



세계선교 25 • 믿음의 선배, 김종열 선교사와 함께… | 김철승
국내선교 28 • 북한선교부 사역 20주년을 맞이하며… | 황광성
문화선교 31 • 십자가의 길, 이루시다! | 유혜정



문화광장 36 • 백석의 전, 영락교회 본당의 역사 | 차영수
40 • 교회 안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찾아서 | 김성보
44 • 6월의 영락영화

영락의 울타리 45 • 해병대 초대교회와 해병선교회 | 이재규
47 • 영락교회와 영락농인교회사 | 안일남



사랑의 겨자씨 50 • 어르신들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 박진현

교회소식 54 • 사랑부 창립 20주년, 2018 전교인전도주일 등
60 • 새가족 환영, 유아 세례 축하
62 • 영락역사자료 / 목회력

야곱의 우물가 63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64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화보 65 • 야곱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영락의 꽃들



김운성 위임목사

글 제목을 보면서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오빠생각>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화 <오빠생각>은 한국전쟁의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영화입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동료를 잃은 한상렬 소위가 전출 간 부대에서 고아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인 박주미와 함께 어린이 학창단을 만들게 됩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어린이들의 맑은 노래는 가슴을 저미듯 슬프고도 아름답습니다. 죽음이 널린 상황에서도 미소로 노래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과 그들의 인생을 찢어놓은 어른들의 욕망은 어쩌면 그렇게 대조적인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동요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동요는 1925년에 최순애 작사, 박태준 작곡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빠생각”

1. 뜰북뜸북 뜰북새 눈에서 울고
빼꾹빼꾹 빼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 가지고 오신다더니

2. 기력기력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동요 역시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빠와 누이의 이별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누이의 눈에 말 타고 서울 가는 오빠가 너무도 늠름하고 멋져 보입니다. 오빠가 약속한 비단구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 친구들은 한껏 부러운 얼굴로 쳐다보았겠지요. 그러나 봄부터 여름까지 울던 빼꾹새도 가 버리고, 이젠 귀뚜라미 우는 가을을 지나 기러기가 오는 겨울이 되었건만 오빠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오

뼈를 기다리다 지친 어린 누이의 가슴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비단구두는 안사와도 좋으니 제발 오빠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왜 우리들은 헤어짐, 이별을 그토록 많이 노래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역사가 비극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 간 오빠는 어쩌면 징용에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6.25 전쟁 당시라면 오빠는 어쩌면 국군이 되어 어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부디 그 때까지 누이가 무사하게 바라면서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어느 능선을 동료의 시신을 넘어 달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징용 갔던 오빠가, 아니면 전쟁으로 소식도 없던 오빠가 돌아와 부쩍 커버린 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오빠가 수십 년이 지나도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빠를 가슴에 묻은 누이들, 누이를 가슴에 묻은 오빠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어찌 오빠들과 누이들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들이 헤어져 이산가족이 된 채로 한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올해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들이 많이 있는 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통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금방

이라도 통일이 될 듯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수법을 이미 겪은 많은 이들이 불안을 금치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잃은 슬픔과 더불어 전쟁의 참혹함을 전 세계 어느 나라 백성보다 빠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아쉬운 것은 그 경험을 가진 세대는 이미 노쇠했고, 새로운 세대는 그 비극적 역사를 통해 배운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망국의 설움도, 전쟁의 비참함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잊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모릅니다. 아울러 이 값진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며, 경계의 눈으로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은 제쳐놓은 채, 먹고 마시고 흥청대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영락교회는 한국전쟁과 그 이후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훈련해왔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영락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간절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에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그 날을 주셔서 삼천리금수강산이 일어나 춤추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만남**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예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영락교회 곳곳에서 최근 일고 있는 ‘내적 전도’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보았다. 여기서 ‘내적 전도’란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돋는 전도에서부터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교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하는 교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돌보는 전도 등을 뜻한다. 이달에 선정한 소식 중 하나는 얼마 전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가 구역예배 때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 식탁교제를 나누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눈 6교구 9구역 식구들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새가족부(부장 장병건 장로)가 정성을 다해 양육하고 돌본 새교우 간증이다. 나머지 하나는 교육부(부장 박남진 장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징검다리-연계 사역’과 그 전도 열매에 관한 소식이다.



2018년 전교인 전도주일 이모저모

사진 원종석 기자

강서·구로·양천교구 9구역

따뜻한 심방 이야기

김보희 권사(강서·구로·양천교구 9구역장)

김태균 목사님을 모시고 잠언 16장1~3절, 이사야 53장 4~6절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뒤로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아홉 분의 구역 식구가 모인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함뿐이지만 더욱 감사한 일은 새신자임에도 흔쾌히 장소와 귀한 음식을 대접해주신 성도님, 그리고 그 새신자를 우리 영락교회로 인도하고 끝까지 돌보시는 권사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함께 감동스러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기

양순명 은퇴권사(강서·구로·양천교구)

말씀을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맴돌기에 눈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사 와서 보니 친구(김옥엽)가 걸어서 15분 거

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간혹 들려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 까지 들어서 새벽마다 중첩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도 보여주고 남대문 시장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교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는 “성당에 좀 다녔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면 모두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뜻도 알게 된다. 또 우리 나이에는 죽음도 생각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했더니 친구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저에게 적선이나 하는 것처럼 “그래 가보자.”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순서마다 알려주었고 2개월 정도 뒤에 새신자 교육을 5회 받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 교육도 받았고 등록도 마쳤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구역장님도 식사도 자주 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친절하게 전화 심방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이 교구 목사님이 심방을 오시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에게 손수 식사 대접을 했답니다. 한 가족처럼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나누었고 아주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평생대학에도 들어가 다윗3반에서 예배드리면서 특활시간에 실버건강댄스반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잘하고 있답니다.

친구는 저만 보면 교회로 인도해줘서 고맙다고



1. 친교모습(좌측 두번째 김보희 권사, 우측 두번째 유승현 성도) 2. 양순명 은퇴권사(좌측)와 김옥엽 성도(우측) 3. 새신자 집에서 드리는 구역예배 모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의 친구 김옥엽 성도가 신앙생활을 질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국이 있기는 하냐?

김옥엽 성도(강서·구로·양천교구)

저는 성당에도 몇 달 다녀보고 교회도 잠깐 다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서만 행복과 행운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양순명 친구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더니 우리집에 오거나 만날 때마다 교회 간다는 얘기를 하기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활이겠지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나이도

먹고 했으니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나를 교회로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 여기면서 “천국이 있기는 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것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믿어지겠냐?”고 반문했더니,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 친구 성격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진드기 같은 성격을 이겨내기 힘이 들것 같아서 “주일에 한번 가보자.”고 말하고 11시에 영락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맙다고 나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자꾸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2부 예배를 남편과 같이 드린 친구는 나와 함께 3부 예배를 또 드려서 미안

하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또 새신자 5주 교육도 끝까지 함께 공부도 했습니다.

이젠 등록 교인으로 평생대학 다잇3반에서 공부하고 특활반 실버건강댄스반에서 여러 성도들과 댄스도 배우고 운동도 합니다. 또 친절한 교우들이 많아서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또 저희 구역장이신 김보희 권사님은 참 친절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심방오셔서 제가 준비한 점심도 맛있게 드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구역식구들과 함께 자주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락교회로 인도한 양순명 친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과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흔쾌히 써 주신 하나님 은혜!

유승현 성도(강서·구로·양천교구)

저는 예전에 외국의 지인들을 통해 수없이 교회로 인도받았으나 불행히도 제7안식교, 통일교, JMS 등 엉뚱한 곳으로 소개되어 세월 낭비와 실망만 거듭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락포토’라는 사진아카데미 교실이 영락교회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진을 좀 더 배우고 싶은 생각에 영락교회 봉사관에 몇 달 나오다가 영락교회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실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이북 출신이라 예전부터 영락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큰 거

부감 없이 출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락포토 회장인 이미혜 권사님의 인도로 아예 새신자 교육도 마치고 정식으로 영락교회의 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강건한 믿음이 용솟음치는 건 아니겠기에 교회의 문턱을 넘는 데 사진이 계기가 되었으므로 우선 사진을 통해 교회에 기여해 보자고 생각했고, 특히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보자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흔쾌히 써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불과 1년도 안 되어 「만남」에 수차례 제 사진이 실렸고 영락교회 홍보출판부의 사진 담당 일원이 되고 영락포토에서 강의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적 같은 일이고, 실제로 가까운 데서 체험한 기적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구역장 김보희 권사님께서 정말 감동적으로 구역 모임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지만 참석자가 적은 모임만을 갖던 차에 이번에는 김태균 목사님께서 왕립해 주시며 새롭게 장소를 옮겨 새신자 아파트에서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뭘가 변화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임 장소에 들어서니 넓은 아파트 거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구역 식구들이 모여 사진 찍을 기분도 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어렵사리 먼 길을 찾아와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성이 깃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주시고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활성화된 분위기가 다음 구역예배 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새가족부

그분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산 성도
성동·광진교구

할렐루야! 저는 서른네 살의 청년 이산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을 군대에서 몇 차례 가본 적은 있지만 꾸준히 다닌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굉장히 어색한 기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 첫 직장이 영락교회 근처에 있는 동부화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웬지 모를 끌림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좋은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쯤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따라 영락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일이 귀찮고 힘들었지만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교회에 계속 따라 왔었습니다. 막상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기분은 좋았지만 주일엔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 호기심과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가족 교육 첫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 주셨는데 저는 혼자 서 있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웬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져 기분은 좋았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교회는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고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살아오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예수님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며 예배에 참여하였고 예배 후에는 새가족 교육도 열심히 받다보니 그런 의구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또한 설교는 단순히 성경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설명만 해주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주일 목사님 설교는 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친구를 따라서 영락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고 그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받으리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으며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세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 왔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 것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절대적으로 믿고 산다면,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 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변에 그분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로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락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저와 여러 교우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

안녕 46기! : 고등부-대학부를 연계하는 '징검다리-연계사역' 소감



김형선
대학부 39기

올해 초 고등부-대학부 연계사역을 실시하였다. 고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대학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2월에 대학부 리더들이 고등부를 방문하여 예비 신입생들을 만나는 기간이 있었다. 생각지 못한 난관이었다. 대학부 예배는 1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주일 알람은 10시 이전에 맞춰진 적이 없었다. 한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 게다가 나에게 고등학교는 졸업하자마자 담 쌓은 곳인데 이 친구들이 요즘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지 알 턱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급식체(최신 유행어) 도 익히고 방탄소년단 음악도 챙겨 들으면서 만남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한 달여간의 연계사역은 처음이라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신선하기도 하고 뜻밖의 기쁨이 있는 사역이었다. 아침에 몽롱한 정신으로 서로 처음 보는 고등부-대학부의 데면데면한 분위기는 치킨과 피자가 빈 구석을 잘 메워주었고, 매주 만나는 가운데 조금씩 예비 신입생들을 향한 애정이 피어났다. 대학부와 달리 다

들 에너지가 넘쳐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모습들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2월 마지막 주에는 고3 친구들의 고등부 졸업식을 하였다. 졸업식을 마치고 친구들이 나올 때, 대학부 리더들이 축복송을 불러주었다. 졸업을 해서인지 마냥 신난 표정들을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첫발을 내딛는 기대감과 밝은 에너지들이 대학에 가서도 밑거름이 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다. 연계사역을 하는 중에는 대학진학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매주 보던 얼굴들 중에 베드로부에 간 친구들도 많았다. 좋은 공동체인 베드로부에서 많이 사랑받으며 힘내길 지면을 빌어 응원하고 싶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등부-대학부 연계 사역을 통해 내 마음 속에 46기 친구들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더 커졌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앞으로 함께 보낼 1년의 호흡을 잘 가다듬은 것 같다. 졸업식에서 축복할 때의 마음으로 46기 벗님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해본다.



고등부-대학부 연계사역 중 하나인 고등부 2월 졸업축하예배

대학부 진학이 이뤄지기 전까지 : 고등부-대학부 공백 연계하기



박상업 전도사
서대문·은평교구
대학부

대학진학 혹은 재수, 또는 직장생활 등 불확실한 미래,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염려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우리 대학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도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 대학부로 올라오는 고3 학생들을 대학부에서는 '46기 벗님'으로 부릅니다. 작년 말부터 46기 벗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리더들을 세우고 고등부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46기 벗님들이 고등부 졸업 후 대학진학이 이뤄지기 전까지 1월과 2월, 약 2개월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신앙생활에서 조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고등부에 남아 예배드리고 교회활동을 지

속한 후에 새 학기에 대학부에 진학하는 연계사역을 옮해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대학부에 진학하여 어색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대학부 리더들은 고등부 반별 모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대학부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서너 차례 지속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대학부에서 스무 살이 된 고등부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3월 초, 46기 벗님들을 대학부 각 마을에서 맞이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각 마을 안에 고등부에서 자주 만났던 리더들을 두어서 한 가족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고등부를 마치고 갓 올라온 46기 벗님들에게 대학부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말씀 안에서 기쁘고 깊은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대학부 교역자로서 46기 벗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든 스무 살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걸음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니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등부-대학부 공백을 연계하는 진학안내 및 소그룹 모습



‘징검다리-연계사역’이란 무엇인가?



박남진 장로
중구·용산교구
교육부장

교육부는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 사랑부, 신앙아카데미, CebC,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등 모두 17개 산하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성에 알맞게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락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평신도들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이 계속해서 영락교회의 현재와 미래 세대로 뿌리를 내리고 영락교회의 주역으로 선교,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돋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중점 사역을 부서간의 유대강화와 연계사역(일명 징검다리-연계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교육부 내 각 부서의 ‘졸업과 진학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징검다리처

럼 잘 연계’하여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아서 교회의 히리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돋는 것에 두었습니다. 특히 (1) 중등부와 고등부의 연계, (2) 고등부와 대학부의 연계, (3) 대학부와 청년부의 연계, (4) 청년부와 선교부 및 여러 부서와의 연계(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역) 등, 이들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미 실천에 옮긴 고등부와 대학부의 연계사역으로 말미암아 고3학생들의 대학부로의 진출이 현격히 증가한 것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 간의 연계사역 역시 멘토(청년부)-멘티(대학부)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선교 차원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학원, 즉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과 교회학교와의 연계도 준비해서 새신자 학생들의 신입도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도 목사와 여러 임원들이 이번 연계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번 연계사역과 관련한 여러 부서장들과 임원들이 교육부의 이러한 연계사역을 잘 인식하고 부서 간의 연계사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하여 본 교회 교육부로 자녀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만남**



특집 //

나라 섬김과 교회역사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영적 갱신을 통한 민족복음화,
영락교회의 사명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큰 두 계명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적 갱신을 통한 민족복음화, 영락교회의 사명



김태균 목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경조부

‘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롭게 개혁하고 바꾸려 할 때 먼저 조직과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 있는 내적인 갱신 없이 아무리 형식을 바꾼다고 해도 그대로입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새로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갱신은 내적인 갱신, 영적 갱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로 서야 진정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거나 건강하고 부유해지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 또는 인간적 방법으로 서로의 이기적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각자 생각과 율법적 잣대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들, 정치적 이슈,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죄악이 만연한 현실을 보며 함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정치, 경제, 국방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무지요 최대의 죄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모든 비극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든 민족의 제일 큰 원수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이런 심정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때로부터 지금껏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민족이 혼란에 빠져 있고, 백성들이 가난과 부패와 타락으로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피난민들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선교, 봉사라는 교회

의 목표를 세우시고 목회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육, 선교, 봉사,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민족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민족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껏 영락교회만이 아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민족의 고난의 때에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의 가난과 아픔을 품고 민족을 이끌어 가던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영락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영적 간증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서 분단의 아픔을 지난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입니다. 민족 분단을 경험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73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 두 동강 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한과 북한이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심지어 생각과 사상 및 감정조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민족정신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민족정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민족 가운데 영적 간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해서입니까?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잘 사는 편입니다. 자유가 없어서입니까? 자유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가 너무 많아서 많은 다양한 소수 계층의 목소리를 다 들어 주느라 오히려 힘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 없는 일제 치하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6.25 전쟁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만을 위하는 소수 사람의 부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서로 속이고 정치하고, 서로 속이고 사업하고, 서로 속여서 먹고사는 국민성이 망국의 원인이라 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일본에 종살이하며 희생당하였던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조국 해방을 위해 순교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상과 이념 다툼으로 총칼을 세우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치문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멽니다.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몰두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해 있는 방종한 자들로 인해 그리고 거기에 영합하는 자들로 인해 더욱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만 몰두하는 영적 타락과 부패와 방탕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락교회는 민족의 분열된 현실과 분단된 현실 앞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 싸워왔다면 오늘날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가난해져 가는 민족정신과 영적인 상황들을 새롭게 개신해야 하는 사명이 영락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회의 영적 간구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아픔을 품고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아가 민족 정화를 위해, 영적 간구를 위해, 민족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도덕적 타락과 방탕, 부패와 방종, 인간의 욕심과 탐욕, 성적 타락과 이기적 욕망 그리고 분열과 갈등과 반목, 나누어진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간구를 통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과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회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영락의 성도들은 과거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먼저 민족이 복음으로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몰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보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북이 서로 화해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시다. 영락 교회가 민족 복음화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껏 민족 복음화를 위해 달려왔던 신앙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복음 통일의 영적 기수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박재현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사회봉사부, 평생대학
영락사회복지재단

마태복음 22장 34~40절의 말씀에서는 한 울법사가 예수님께 울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 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울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37~40).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좀 더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연관된 것이고 이웃 사랑은 봉사와 구제 등의 사회적 책임과 활동에 대한 실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역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봉사 및 구제 활동이 31.6%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봉사 및 구제활동이 1위였으나 윤리와 도덕적 실천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거룩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분리되다. 격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대중 매체나 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은 똑같이 죄와 세속적인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실함을 의미하며,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진실함과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는 헌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큰 계명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19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른척하지 않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떡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이웃을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때에 함께 자주 쓰인 단어가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해석해 보면 ‘마음, 허파, 창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의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또는 말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치료와 도움의 목적은 죄 사함이었으며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이웃의 아픔이 내 마음으로, 내 창자에까지 느껴질 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으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설교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의 배식을 돋는 사역은 매월 각 교구에서 봉사자들의 지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동대문 쪽방촌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며 겨울에는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도 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봉사와 섬김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도 많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쪽 다리를 잃고 고아가 된 9살 된 여자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돌보고 어려운 노인 분들을 돋기 위해서 세운 보린원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우수한 시설로 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원 봉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참여와 봉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윤리와 거룩함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두 계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찬양을 통해 남과 북을 잇는 아름다운 음악인, 이슬기 청년을 만나다

교회의 여러 지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젊은이를 만나는 <영락 지금>! 이번 달은 자유인찬양대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이슬기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자리가 많지만, 자유인과 함께하는 섬김은 어떤지, 또 함께하는 예배는 어떤 은혜가 가득한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락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영락교회 자유인예배와 청년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스물아홉살 이슬기입니다. 자유인예배에서는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락교회를 다녔으니 여러 부서 예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유인예배가 다른 예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선 예배가 특별해요. 다른 예배보다 훨씬 간절하고, 또 은혜에 갈급해요. 예전에 베드로부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부는 다 같이 입시라는 하나의 기도제목을 공유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는데, 그 이후로 각자의 기도제목을 품고 나아가는 예배에서는 사실 그런 절실함을 많이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유인예배에서 예전 베드로부에서 느꼈던 간절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인예배가 더 간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배에 나오는 대부분들이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을하게 된 분들이고, 그 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죠. 아들, 딸 혹은 부모님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평화와 통일, 가족의 안녕이라는 공통의 기도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기도제목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 누구보다 절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인예배에서 청년들의 섬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섬기는 청년들이 많을수록 좋죠. 자유인예배에서는 매월 첫주 통일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 오후 4시 30분에는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하베로 기도회를 합니다. 하베로기도회는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또 매주 예배 후에 선교관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를 함께 진행해주실 교사의 자리도 있습니다. 장소 사용 문제로 성경공부가 길지 않으니 마음이 있는 분은 편하게 예배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인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선교관에서 드립니다(웃음).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가족, 친척들 중에 음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친할아버지께서 평양음대 1회 졸업생 출신이세요. 그래



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다가 자연스럽게 성악을 하게 됐어요. 또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유치부 때부터 찬양대로 섬기면서 음악으로 섬기는 일에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할아버님께서 평양 음대 출신이시라니, 지금 섬기는 자리와 묘한 연관이 있네요.

그러네요(웃음). 생각해보니 신기해요.

현재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하셔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영락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부도 그렇고, 자유인예배도 참석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를 한 가지 꼽자면, 교회가 세상의 모임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주 동안 느꼈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묻은 때를 예배를 통해 벗기고, 또 지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특히나 요새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저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아져서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충족해주는 욕구들이 많으니 성경을 읽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이유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본질보다 형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와 기도도 곁치레에 가깝고, 서로 진심으로 삶을 나누기보다는 대충 한 주 잘 보냈다는 나눔을 하고 집에 가기 바쁘죠. 사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영락교회가 가진 희망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희망이자 답이라고 생각해요! 주위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1년 만에 청년들의 숫자가 천 명이 늘어난 교회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기도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내가 느끼고 맞닥뜨린 현실이 바뀌는 경험은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락교회도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 청년부 내에 합심기도와 이런 영적 나눔이 많아지면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통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아졌어요. 영락교회가 오랫동안 가져온 목표이자 비전이니만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통일 예배, 자유인예배, 또 통일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기도로 일어나는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남**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김태영 객원기자



꿈꾸는 노인과 별을 쫓는 청년

오래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려셨는데…’, ‘조상님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하면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어떠한 말을 신뢰하나요? 어떠한 말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나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나요? 인터넷이 주는 정보에 신뢰가 가지 않나요?

예전에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였다면 지금은 사람의 말보다는 과학과 의학 등 정보를 신뢰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잣은 말 바꾸기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한 몇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효과적으로 호소하는 과학과 의학을 맹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살 된 제 아들은 지금도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아들은 누나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가 부천으로 이사한 걸 아실까?” 묻자 “그럼 당연히 아실거야” 누나가 답했습니다. 아들은 10살 때 친구 용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주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째,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다.



이희철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장

둘째, 과자와 빵을 창가에 놓는다.

셋째, 편지를 써서 놓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방충망도 열어 놓는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재미있으신가요? 어린아이가 아직도 동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믿음이 가는 우리는 점점 보이는 현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상상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꿈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망상이라는 정신 병리적 증상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28)

젊은이는 이상, 즉 비전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젊은이와 노인 모두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 안 되나요? 왜 청년은 비전을 봐야 하고 노인은 꿈을 꾸어야 하나요?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비현실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이상)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이상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은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창조와 창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꿈은 바라보기보다는 꾸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에 기초하여 꾸미는 것입니다. 정신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꿀찌이지만 우등생이 되는 꿈을 꾸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아직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상을 바라보고 비현실적인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시도를 할 때 창의적인 일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맹신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현실적인 염려를 하게 만들어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별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별을 죽는 청년은 아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별을 죽는 청년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편 젊은이가 별을 죽을 수 있으려면 꿈을 꾸는 노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는 노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바라보는 것이지만 꿈은 꾸는 것입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꿈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현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꿈을 꾸밀 수 있을 노인이 있을 때 청년은 이상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노인이 있을 때 청년은 별을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상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꿈을 꾸는 종교입니다. 꿈을 꾸는 노인이 많아지면 땅만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던 청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노인과 젊은이여! 꿈을 꾸며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죽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믿음의 선배, 김종열 선교사와 함께…



김철승 안수집사
인천교구
선교부 해외선교 차장

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낙상사고인데 ‘위급 발생 시 연락처’가 영락교회로 되어 있다는 관계 구청의 연락이었다.

선교부 해외선교 차장으로 봉사하면서 두세 번, 서울 도봉구 도봉로 바길 반지하에서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김종열 선교사님을 찾아뵈었다. 무릎관절의 불편함으로 거동이 힘드신 몸이지만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교사님이었다. 지난 2016년 12월 초, 김영대 은퇴장로님과 함께 선교사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니 예전엔 없었던 간이침대가 있었다.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침대를 준비해 주었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의 보살핌으로 구청 소속 도우미가 평일 오전에 방문해서 집안 청소를 해주고 있었다. 방문하고 나오면서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영락교회로 연락해달라는 메모와 교회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왔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6월 어느 날 허름한 복장을 한 노인 한 분이 선교부 사무실(당시 선교부장 김영대 장로)을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사후에 영락교회에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당시 남루한 복장이기도 했지만 말씨까지 어눌한 노인분이어서 쉽게 믿기지 않았었고 이후 차근차근 그분의 이야기를 듣던 중 2009년 3월에도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2천만 원을 교회에 목적 현금으로 기탁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까지 본인 사후에 교회에 기탁한다는 말씀이었다(이후 2013년 7월 임대보증금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함). 또한 기탁하신 금액을 동북아 선교에 써달라는 말씀과 본인 사망 후에 영락동산에 묻히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

제대로 기억을 못하시며 어눌한 말씨로 본인이 했던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빛바랜 사진첩의 사진들로 그 당시 선교사님의 사역을 엿볼 수 있었다.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유추해보았다. (선교와 관련해서는 영락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둠)

선교사님의 해외선교 시작은 1980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RIYADH)라는 곳에서부터였다. 그 당시 한국에서 온 전기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도움으로 레스(RESS) 한인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 아래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 RIYADH DONGAH RESS 교회 기공식 때 (1980. 3. 28)의 모습이다.

이후 1988년 7월 1일에 선교중앙교회에서 파송되어 1989년부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Johor Bahru) 한인선교교회 담임목사를 시작하셨다.

1995년부터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을 하셨는데, 특히 흑룡강성 하얼빈시와 길림성 심양시에 있는 약 30여개의 교회를 뜻이 맞는 동역자들과 섬기셨고,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정릉 부근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으셨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20년 이상 해외선교사역을 하시면서 가정에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다. 그로 인해 사모님과 헤어졌다고 말씀하셨다. 슬하에 아들과 딸이 있지만 소식을 전혀 모르고 계신 듯했다. 굳이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혹여나 선교사님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레스 한인교회 기공식.
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



선교중앙교회 파송식 장면(1988년), 당시 선교중앙교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선교사님과 김영대 은퇴장로님이 함께한 모습

다행히 고관절에 금이 가긴했지만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하며, 다시 한 번 선교사님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퇴원 후 불편하신 몸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노인건강보험공단에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시설 3급을 확정 받았다. 요양원 입소가 쉽지 않았는데 의뢰했던 요양원의 추천으로 금년 4월 12일에 의정부에 있는 VIP○○요양원으로 입소 후, 우리 교회 사회복지재단시설인 영락노인전문요양원으로 재입소하여 선교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해외선교를 시작한 지 36년이 지난 지금 김종열 선교사님에게는 침대 옆 선반에 작은 성경이 전부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고 계시며 같은 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랫동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본인의 전 재산을 동북아선교에 써달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실천하시는 믿음의 선배 김종열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남**

북한선교부 사역 20주년을 맞이하며…



황광성 장로
성남·분당교구
북한선교부장

2018 복음통일학교 수료생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사역 시작

영락교회의 설립자 한경직 목사는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사랑했고 북한을 위해 늘 기도했다. 이철신 원로목사도 특별히 북한선교에 소명을 갖고 기도했다. 교회 중직자와 모든 영락 성도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 교회는 피난민교회로 북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그러나 공산 치하인 북한에서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초기에는 북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선교를 계획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다.

1970년 한경직 목사는 한국 교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북한선교를 제시했고, 1992년 탐플턴상을 받으면서 상금전액을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 교회에 헌금했다. 1997년 이철신 목사 부임 후 1998년 ‘북한 땅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 아래 영락교회는 북한선교

를 위한 공식적인 교회 부서인 북한선교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과제와 북한동포의 영혼구원, 하나님 사랑으로 선교를 통한 민족 갈등의 치유를 위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통일에 응답하고자, 2011년 북한선교센터는 이름을 바꾸어 제직부서인 북한선교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북한선교는 하나님이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북한선교부는 분단된 민



송악기도처 예배/기도회 전경



중국 쪽 압록강변에서 바라본 북한 선전마을

족의 통일을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북한선교 사역의 선도자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사역 전개

영락교회의 북한선교 전략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동북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거점 포스트를 구축하고 이곳을 통해 선교를 실시하는 ‘원심적 선교’,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유인에게 전문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북한선교 사역자로 양육하는 ‘구심적 선교’ 그리고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동포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선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 선교전략에 기초해 북한선교 사역은 기도사역, 교육사역, 자유인사역, 대북지원사역 등 네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기도사역은 무엇보다 복음통일을 위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역이다. 북한동포 사랑 기도회, 복음통일 기도회, 송악기도처 기도회, 청년들의 모임인 하베로 기도회 등을 통해 복음통일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둘째, 교육사역은 북한선교학교에 이어 이루어지

고 있는 복음통일학교와 영락포럼 등을 통해 준비되고 헌신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역이다.

셋째, 자유인사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탈북 자유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국내에 처음 입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평화교회)와 하나님(하나교회)을 지원하고, 교회에서는 자유인예배부와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신앙교육과 기독교 가치관, 국제사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교육도 실시하는 사역이다. 이와 함께 결연지원 등을 통해 자유인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지도하며 섬기고 있다.

넷째, 대북지원사역은 ○○접경지역 쳐소교회 지원, 국내 NGO(민족사랑나눔)와 국제 구호단체(월드비전) 등을 통해 북한 어린이와 환자를 위해 빵과 밀가루 등 양식과 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북한선교부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연합하고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효율적인 북한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맺는말

금년은 북한선교부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북한선교 사역자를 위해 사람을 준비하고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금을 준비해왔다. 지금 한반도에는 통일이 곧 올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통일이 복음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진정한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북한선교부는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다. 만남

【영락교회 북한선교 약사】

- 1) 북한선교 초창기 [1945년 교회창립~한경직 목사 퇴임]
- 민족복음화와 남북통일
- 2) 북한선교 조정기 [1971년~1997년]
-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
① 총회 북한선교부를 위한 위원회 설치
[북한전도대책위원회(1970)-현 남북한선교 통일위원회로 명칭변경(1996)]
- 3) 북한선교 사역기 [북한선교센터 설립~현재]
-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① 1998년 북한선교센터 설립 ② 1999년 자유인성경반 시작
③ 1999년 대북지원 시작, 평북도소아병원 현대화 지원
④ 2010년 자유인예배부 부서 승격 기념예배
⑤ 2011년 북한선교부 제직부서 분립
⑥ 2011년 뉴코리아국제학교 개교



2018 북한선교대회

- 기간 : 6/20(수)~6/24(주일)
- 주제 : 북녘 땅의 변화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목적현금 : ① 탈북자유인 선교지원(하나원 등) ② 북한교회 재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19~21)

• 2018 북한선교대회 주요 일정

일자	내용	시간	장소
6/6,13,20(수)	북한동포사랑기도회	수요기도회	본당
6/16(토)	송악기도처 방문	오전 9:00	송악기도처
6/20(수)	북한선교 영락포럼 (강사 : 임현수 목사)	오후 1:00	베다니홀
6/22(금)	금요심야특별기도회	오후 8:00	본당
6/24(주일)	북한선교주일예배	1~5부 예배	본당
	찬양예배	찬양예배	본당
	베다니광장 행사 - 복음통일 체험전, 공모전 - 북한음식 체험전 - 북한선교 사역 전시회	종일	베다니 광장

십자가의 길, 이루시다!

성금요예배 뮤지컬 올리기까지



유혜정 권사
성남·분당교구
선교부 문화선교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3월 30일 성금요예배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십자가의 길’의 작가로서 그리고 선교부 문화선교 자문위원으로서 이번 공연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공연을 이루어 내었는지 제작 과정을 영락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일(월)

유혜정 권사(작가) 저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1일 영락기도원에 올라가 신년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 설교 중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익숙해야 한다”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후 ‘십자가의 길’을 계속 생각하던 중, 첫 주일 예배에서 본당 앞에 앉아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재현한다면 어떨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높고 넓은 전면을 어떻게 휘장으로 덮었다가 순식간에 갈라지도록 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교회에서 허락은 할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1월 5일(금)

컨셉을 설정하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공연 목적이 아닌 예배 안에 들어가는 예배극의 형태일 것, 둘째는 겟세마네 장면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절규하시며 갈등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나타낼 것, 셋째는 휘장을 설치하여 갈라지게 할 것, 넷째는, 본당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붉은 천으로 이미지화하여 걸어 놓고, 다섯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붉은 천을 가슴에 안고 본당 중앙을 걸어 나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컨셉으로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1월 18일(목) : 대본 첫 리딩

승민성 집사(사역팀장/조명) 첫 리딩. 작가와 연출 박준영 집사와 배우들이 모두 모여서 찬양과 요한복음 말씀으로 경건회를 드린 후 대본을 첫 리딩 했습니다. 저는 사역팀장으로 팀을 이끌어가며 영적인 리더로서 자리를 지키며 팀원들에게 그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박준영 집사(연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본 집필과 작곡, 의상, 소품 제작, 라이브 밴드, 배우들의 연습 등 쫓기는 시간 속에서, 7시30분부터 모여 경건회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들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셨고,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연습을 통하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배우이기 때문에 연출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두려웠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씩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2월 22일(목) : 첫 곡이 작곡됨

임수현 집사(작곡/편곡/밴드) ‘집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음악으로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장면

고통,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심, 저희를 향한 사랑이 노래로 표현되어야 했기에 준비하는 동안 이천년 전의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작곡된 노래는 회의를 통하여 계속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부족함에도 이를 옆에서 채워주는 작가 및 팀원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트니스를 통해 능히 일하심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민희 집사(음악감독) 뮤지컬이라는 특성상 여러 스텝들과 배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 작곡한 노래를 장면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작가와 작곡가, 연출과도 계속 상의를 해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는 과정, 배우들의 반응 등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에 맞도록 배우들에게 노래로 연기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도 능력의 한계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공연은 무사히 끝났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더욱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2월 24일(토): 안무 시작

장미옥(안무/배우) 겸손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찾지 못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무자로서 연출과 생각이 다를 때, 준비해 갔던 동작이 틀렸다고 할 때, 낙심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니 노래와 장면에 맞도록 안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낫아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박소연 집사(무대미술/의상/소품) 생각지도 못한 무대지원팀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무대 소품과 의상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대문종합시장을 다니면서 휘장을 만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제작하였습니다. 휘장이 변개 조명에 맞춰 떨어질 수 있도록 자석을 천에 붙여 실험했으나 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더 강력한 자석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상과 소품을 만들면서 몸은 고되었지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집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메말랐던 제 신앙에 단비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월 29일(목): 마지막 리허설

송민성 집사(사역팀장/조명) 본당 안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배우들과 장면마다 맞춰보며 조명 디자인을 저장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본당을 사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마음대로 조명이 움직여지지 않고, 포그기계(안개를 분사하는 기계)에서 포그(안개)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명기가 더 있으면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3월 30일(금): 성금요일 공연 당일

채진규 집사(서기/음향) 공연 중 무선 마이크 불량으로 음향이 고른 소리를 내지 못해서 잡음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 순간 몹시 당황했었지

만, 주님께서 어떻게든 공연을 마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선경 집사(분장) 이번 공연 중간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피 묻은 분장을 문 밖에서 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찢기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분장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는 순간에 항상 저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김재선(예수님) 예수님 역을 맡아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셨을까? 고민했지만 항상 물음표로 남았습니다. 제 안에 중요한 것 없이 자꾸 역할에만 노래에만 연기에만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십자가의 무게와 그 깊이가 너무나 무겁고 깊음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찢어질 듯한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박선혜(막달라 마리아) 가볍게 참여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연습이 진행되어 갈수록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의 생

각과 결심으로 예수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엎드릴 때, 작은 자를 통해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영록(빌라도) 최근에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져 상처가 생기고 아픔들이 쌓였습니다. 그것들을 딛고서 일어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감사함과 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부 작품 공연과 겹쳐서 연습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연 당일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공연 시간에 간신히 맞추어 와서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사히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중열(바라바) 저는 5년 만에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극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30년을 살아온 대구를 떠나 들어갔던 극단에서 5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가 헤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숨을 잃고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인공호흡을 해주셔서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능력으로 바라바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위트니스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며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샘처럼 흘러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장면

안동현(대제사장) 능력이나 재능이 없는 제가 이렇게 역할을 부여받고 뮤지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생각 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온기가 제게도 전이되었고, 저는 덕분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유혜준(유대인) 배우 전공자로서 성금요예배 공연에 처음으로 참여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성금요일의 뜻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펍박하는 군중으로서 더욱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드러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흥미롭고 은혜로운 연습과 공연은 처음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모든 스텝들과 배우들 그리고 문화선교 목사님과 전도사님, 임원들, 목양부 목사님들까지 모든 분들을 합력하게 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 안에 서로 간의 갈등과 작품에 대한 고민과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합력’하게 하셨고, 위로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날**

영락교회는 1950년 6월 4일 본당을 신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 6월을 맞아 「만남」 특집으로 ‘나라 섬김과 교회 역사’를 다루면서, 문화광장도 우리 교회 본당과 교회 내 여러 조형물에 담긴 역사를 살펴본다.

백석의 전, 영락교회 본당의 역사

영락교회 본당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배 신앙인들의 깊은 신앙적 소망과 기도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예배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해온 백석의 전, 영락교회 본당이 지어진 배경과 역사를 나눔으로써 세대 간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차영수 목사
서초교구
예산위원회 위원

1. 교회 건축의 계기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27명의 성도들이 1945년 12월 2일 지금의 본당 자리에 교회를 설립하여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1947년 여름 어느 주일, 설교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천막이 찢어지고 천막 안이 물바다가 되었다. 쏟아지는 소낙비 속에서 초라한 천막 교회의 처지와 피난민의 설움이 겹쳐 “주여,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당시 2천여 명의 교인들에게서 터져 나온 것을 계기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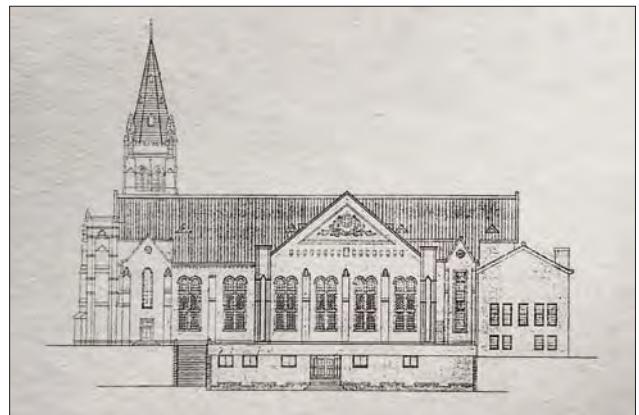
1947년 9월 성전 건축위원회가 조직되고 건축현금을 모아 1949년 3월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인들은 피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어 나가는 것만도 힘겨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대다수가 남북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 정든 북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성전건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공사가 시작되자 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땅을 파고 돌을 날랐다.

영락교회 본당은 ‘백석(白石)의 전(殿)’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흰 돌로 건물을 짓게 된 것은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에 있을 때 언덕 위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흰 돌로 지은 교회당이 삼천리 강산을 꽉 메운 꿈을 꾸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2. 설계의 특징과 구조

설계는 한경직 목사와 오산고등학교 동문으로 1934년 고려대학교 본관 등을 설계한 석조 건축물의 권위자 박동진(1899~1981)씨가 맡았다.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석조 건물로는 일제 강점기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서울역사가 있었다. 이들은 둑근 돔(dome) 지붕을 얹은,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절충한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과거 로마 건축물 양식이었다. 박동진 씨는 제국주의 일본이 유행시킨 로마제국의 건축 양식을 피하고 싶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첨탑을 포함한 고딕 건축 양식이다. 고딕이란 용어는 고트족에서 유래한 단어로, 중세시대 건축가들은 고대 로마제국의 건축 양식에서 유래한 로마네스크 양식과 차별되는, 민족적 특성을 살린 최신 양식으로 창안했다.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국가주의가 부상하면서 중세시대 유행하였던 고딕 건축양식이 다시 부활했는데, 박동진 씨는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유럽 각국을 다니면서 고딕 양식 건축물을 많이 연구하였다.

영락교회 본당은 고딕 양식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꼭대기에 십자가를 단 종탑(tower)이 있고, 본당 정문 입구에 있는 아치(arch)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반원형이 아니라 끝이 뾰족한 첨두 아치



본당 증축 투시도



1949년 성전 기초공사에 성도들이 가마니로 돌을 나르고 있다.



1970년 교회 전경. 본당 남쪽에 옛 선교관이 보인다.

(pointed arch)이다. 본당 안으로 들어오면, 정면 나무 십자가가 있는 공간도 첨두 아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내부 공간에 빛을 많이 수용하도록 창문을 크게 냈으며, 신비롭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문 입구 상층부와 측면 벽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사용하였다. 완공된 예배당은 연간평 350.5평으로 동서방향으로 직사각형을 이루었다.

3. 증축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예배 공간이 크게 부족해졌다. 1970년대 들어, 교인 수도 크게 늘었다. 방배동으로 이사를 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회를 증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직접 기초를 다지고 돌을 나르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은 초기 교인들은 자기 집보다 더 소중히 여겨온 성전을 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동서로 길게 앓은 석조전을 그대로 두고 남, 북 양쪽에 날개를 달아 십자가 형태로 증축하기로 하였다. 면적은 970평 규모로, 원래 면적보다 2.8배 늘었다. 1978년 5월,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된 예배당에서 현당예배를 드렸다.

증축 후 본당의 구조를 살펴보면, 수표로를 향한 교회 정문(동문)에서 언덕을 올라 봉사관 앞마당에서 돌계단을 올라가면 석조 예배당의 전면 즉 본당 입구를 만난다. 본당 정면은 원래 건물을 그대로 살려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본당 내부의 설교 강단과 성가대석, 십자가가 있는 곳이 서쪽이다. 봉사관 방향으로 오른쪽 날개가 북쪽을, 50주년기념관 방향으로 왼쪽 날개가 남쪽을 향하고 있다.

4. 성경적 의미

본당 입구를 동쪽에 내어 동문으로 만든 의미가 있다. 창세기 2장8절을 보면 에덴동산이 동편에 있었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동산의 입구도 동쪽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



남측과 북측 날개를 증축하기 전 모습



동서남북 십자가 형상으로 증축 직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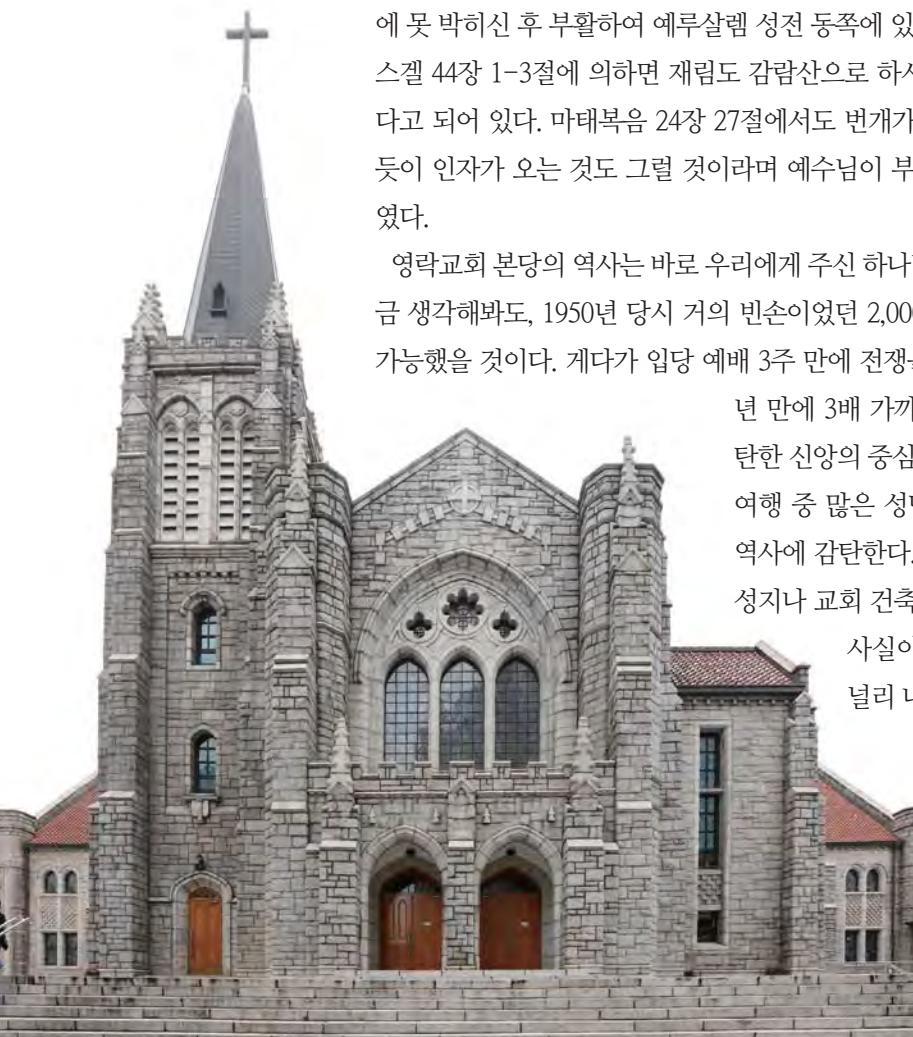
여 갈데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다. 예배당 동문으로 들어가서 제단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민수기 3장 3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동쪽에 있는 성막 문에서 어린양을 제물로 드리고 죄 사함을 얻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 동문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다.

가톨릭, 영국성공회, 그리스정교의 대부분 건축물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감람산에서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다. 에스겔 44장 1-3절에 의하면 재림도 감람산으로 하시고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도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라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동쪽으로 오신다고 하였다.

영락교회 본당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 하는 역사다. 지금 생각해봐도, 1950년 당시 거의 빈손이었던 2,000명의 피난민들의 힘만으로는 불 가능했을 것이다. 게다가 입당 예배 3주 만에 전쟁을 겪었다 되찾은 예배당은 근 30

년 만에 3배 가까이 커졌고 그 뒤로 40년 동안 탄탄한 신앙의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 여행 중 많은 성당과 교회를 보면서 건축의 뜻과 역사에 감탄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기독교 성지나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락교회의 스토리를 좀 더 널리 나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만남**



증축한 직후 본당 정면. 출입문과 창문 모두 꼭대기가 뾰족한 첨두 아치형으로 표현했다.

교회 안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찾아서

입당 예배 3주 만에 발발한 6. 25 한국전쟁으로 성도들은 현당도 못한 채 한강 남쪽으로 흘어져 해매다가 돌아왔다. 영락교회 역사의 숨소리이기도 한 문화유산과 예술의 현장을 소개한다. 영락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차세대 영락인들이 보다 힘차게 문화선교의 문을 열어가는데 탄탄한 자양분이 되기 바란다.



김성보 은퇴안수집사
노원교구
홍보출판부 자문위원

1950년 9월 28일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첫 소식을 한 일본 신문의 특파원은 이렇게 타전하였다. “폐허 속에 9월 28일 정오 서울 중심지에 있는 영락교회를 비롯, 한양교회 등 시내 5개 교회에서 일제히 교회 종을 쳐 서울 시내에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조선 임금 어진 모셨던 영희전 자리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1907년 그해 서울에 일제가 중부경찰서와 천리교당을 함께 세웠다. 그 자리는 원래 영희전 터였다. 영희전은 1619년(광해군 11년) 조선 시대 여섯 임금의 어진(초상화)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이다. 1900년(고종 37년) 영희전은 경모궁 자리로 옮겨졌다. 일제는 한국사회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경찰서와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일본 토속종교 천리교 본당을 영희전 자리에 세웠다.

지금의 봉사관 자리가 천리교 자리다.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를 다닌 50대까지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곳에서 예배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봉사관 옆 한경직목사기념관 자리에는 한 목사님 사택이 있었다. 한 목사님은 생전에 ‘그곳은 대감이 살던 곳’이라고 증언하셨다.



1. 지금의 봉사관 자리에 위치했던 옛 베들레헴성전
2. 중부경찰서 민원봉사실 옆에 있는 영희전 터 표지석



본당 2층 동측에 위치한 선한목자상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 본당 유리창

선한 목자

2층 대형 스테인드글라스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제작했는데, 40년이 되었는데도 색상이 변치 않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색채가 아롱지고 있다. 정리숙, 김명순 은퇴권사가 기증했다. 1978년 본당을 중축하고 1980년에 유리창을 스테인드글라스(색유리)로 설치하여 분위기를 살리도록 하

였다. 본당 1,2층 유리창은 성령이 세계를 감싸는 그림으로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성령이 세계를 감싸는 성령의 역사를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2층 대형 유리창은 선한 목자를 표현했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남용우 작가의 작품이다.

돌 간판

6. 25 전쟁 후 교회 정문을 새로 설치하면서 노재현 장로의 글씨로 돌 간판을 세웠다. 이 돌 간판은 지금 북문 경비실 문 앞에 보존되어 있다. 이 돌 간판의 서체는 ‘영락교회’ 교파의 서체로 197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그 전의 첫 간판은 정문 오른쪽 2~3m 옆에 ‘베다니교회’란 글자가 나무에 세로로 새겨져 있었다. 이 간판은 일제 때 세워진 정문을 철거하면서 같이 내렸다.

돌간판





본당 입구 정면 상단에 위치한 연혁동판

영락교회 연혁 동판

교회 창립 스토리를 한영문자로 새겨 이채롭다. 10x1m 크기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보공예와 금속공예를 전공한 김기련 권사(1923-1983)의 작품이다.

방공호

본당 밑 방공호(防空壕)를 아십니까? 일제 강점기 말에 미군의 공습이 빈번해지면서 일제는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 방공호를 파서 공습 대피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영락교회 방공호는 천리교 건물 앞에서 시작된다. 중부경찰서 부근까지 연결하는 콘크리트 벽을 30미터 쯤 파 들어가며 본당 쪽으로 그자 방향을 바꾸어 50미터 정도를 파놓은 미완성 방공호이다. 지금 봉사관 앞마당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카타콤이란 간판이 붙어있다. 교회 유물 1호라 할 만하다.

댓돌

본당 북문 1층 출입구에 놓여 있는 이 댓글들은 원래 본당 남쪽 창가에 있었다. 지금의 50주년기념관 앞마당에 있던 (구)선교관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면서 북향인 선교관 출입문 쪽에서 결혼기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인물이 역광으로 그늘이 지자 사진사가 고심 끝에 고안한 것이다. 본당 남쪽 벽에 댓글들을 설치하고 주례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댓글을 딛고 올라서게 했다. 그러면 본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었다. 이 댓글은 다듬다 만듯하고 어딘가 엉성하지만 한국의 조형미를 상징한다. 지금 위치에 둔 댓글을 원래 자리로 옮겼으면 한다.



카타콤으로 불리는 방공호 외부와 내부 모습





본당 동문 앞 계단의 배꽃 문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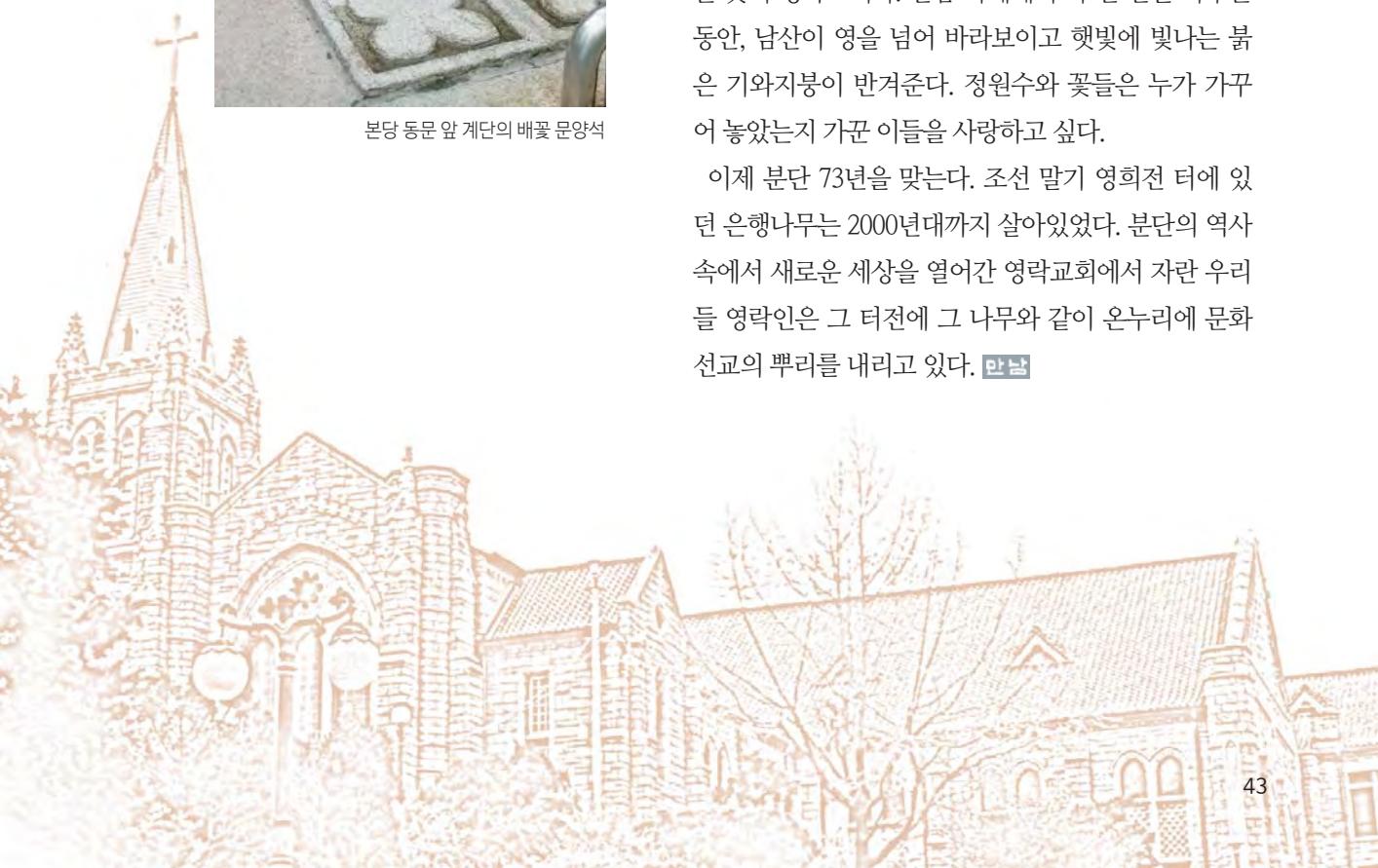
배꽃 문양석

동문 계단에 설치된 배꽃 문양의 사연을 아십니까? 어느 노령의 권사님께서 영락교회 건물에 왜 사쿠라 문양을 새겼냐고 항의하셨다. 그 꽃은 벚꽃이 아니라 배꽃이라 말씀드려도 파내라고 하셔서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계단은 1978년 본당 증축 때 새로 만든 것으로, 배꽃 문양석도 이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배꽃 문양은 조선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 문양과도 닮았다. 1910년 창경궁 안에 황실 박물관을 세우면서 그 건물에 새긴 오얏꽃 문양이 영락교회 북문 계단에 새겨진 배꽃 문양과 흡사하다.

사랑이 꽂피는 영락의 터전을 거닐며

빌딩 숲 속에 감춰진 고궁이나 공원 같기도 한 거룩한 공간에 잔잔히 찬양이 흐르는 곳, 지나다가 머물고 싶은 곳이 영락교회다. 만남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동안, 남산이 영을 넘어 바라보이고 햇빛에 빛나는붉은 기와지붕이 반겨준다. 정원수와 꽃들은 누가 가꾸어 놓았는지 가꾼 이들을 사랑하고 싶다.

이제 분단 73년을 맞는다. 조선 말기 영희전 터에 있던 은행나무는 2000년대까지 살아있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 영락교회에서 자란 우리들 영락인은 그 터전에 그 나무와 같이 온누리에 문화 선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만남**



6월의 영락영화



MOVIE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1965)

감독 : 로버트 와이즈

주연 : 줄리 앤드류스, 크리스토퍼 플러머, 엘레노어 파커

장르 : 뮤지컬 드라마

상영시간 : 2시간 52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줄거리 : 오스트리아의 한 수녀원. 말괄량이 견습 수녀 마리아는 기도 시간에 늦기 일쑤다. 원장 수녀는 노래를 좋아하고 명랑한 마리아를 폰 트랩 대령 가족의 가정교사로 보낸다. 엄격한 폰 트랩 대령은 일곱 자녀를 군대식으로 키웠지만 마리아는 노래와 음악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연다. 한편 나치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폰 트랩 가족은 극적인 탈출을 계획한다.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등 역사적인 명곡을 남긴 뮤지컬 영화.



(상)3일 (하)10일

바라바 (Barabbas, 1962)

감독 : 리처드 플레이셔

주연 : 안소니 퀸, 아서 케네디, 실바나 망가노, 잭 팔런스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2시간 24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줄거리 : 예수 대신 풀려난 도적 바라바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라바의 이름은 독특하게 기억된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 민중의 요청으로십자가 형을 면했던 바라바의 삶을 픽션으로 담아낸다. 바라바는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사랑했던 창녀 라헬은 예수를 영접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 바라바는 다시 체포되어 평생 광산 노역을 선고받는다. 바라바는 광산에서 기독교인 사하크를 만나 친구가 된다. 광산 사고 후 로마로 간 이들은 검투사가 되고, 더욱 큰 시련에 부딪힌다. 바라바 역을 맡은 안소니 퀸의 연기가 볼 만하다.



(상)17일 (하) 24일

해병대 초대교회와 해병선교회

6.25전쟁 중 진해에서 창설... “한번 해병이면 천국까지 해병”

1949년 2월 5일 해군과 육군 가족 15명이 용산 국방부 관사 33호(해군 김대식 중령 관사)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용산 군인교회 창설 예배다. 이 예배가 우리나라 군인 교회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지금은 대한민국 전후방 곳곳 군부대에 군인교회가 세워졌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1004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 받으며 거듭나고 있다. 군인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향한 요람으로서 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해병대초대교회 : 6.25 전쟁 중 진해임시주둔지에서 창설

해병대 사령부교회가 처음 선 곳은 6.25 전쟁 중 경남 진해 임시 주둔지였다. 1951년 3월 12일 주일 아침에 장병 60여 명이 모여서 신학도인 김동선 군무원의 사회와 참모장 김대식 중령(장로)의 기도와 박창번 목사의 설교로 창설 예배를 드렸다. 그 후 임시수도였던 부산 용두산으로 사령부가 이동하면서 사령부 교회를 신축하고 1952년 5월 4일(주일)에 준공 예배를 드렸다. 당시 임시수도인 부산에 머무르고 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3부 요인 및 군 수뇌들이 참석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당시 스물 두 살이었던 필자도 감격 가운데 그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54년 12월 11일의 용두산 일대 큰 화재로 인하여 그 예배당은 소실되었다.



이재규 은퇴장로
서초교구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

서울 환도 후 해병대 사령부가 용산구 후암동으로 옮기면서 군용 쿤셋(Quonset) 건물로 교회를 짓고 1955년 4월 15일 서울 환도 및 해병대 창설 제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백낙준 박사가 설교를 했고, 축사는 서울시장, 축도는 함태영 부통령이 각각 맡았다. 그 후 1959년 12월 31일 제3대 사령관 김대식 중장 재임 시 건물을 신축하여 현당했다. 그곳에서 지휘관들과 참모 장병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림은 물론 해병대의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병대 교회의 역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 문화재 지정 감사예배 기념

1973년 10월 10일 국방부령 제92호에 의거하여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교회 건물은 다른 군의 보급창고로, 또는 군악대 연습장 등으로 사용되어왔다.

해병대교회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2001년. 문 닫은 지 28년만이었다. ‘해병대선교회’가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아 교회 건물을 해병대 재산으로 환원되었고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했다. 2003년 4월 17일 ‘초대교회 돌 기념비’(사진)를 세웠으며, 2005년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라는 명칭을 회복하였고 2005년 12월 13일 종교시설(해병대교회)로 관할 법원에 등기했다.

후암동 해병대교회는 불굴의 신화를 남긴 필승 해병대 정신의 산실인 동시에 신앙의 근거지로서 군종사적 역사적 가치와 한국군 기독교 문화유산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군인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2017년 2월 15일 등록문화재(제674호)로 등재되었다. 초대교회는 현재 해병대 복음화를 위한 군인 교회로 크게 쓰이고 있다.

영락교회 해병선교회 매월 첫주 모여

해병선교회는 1994년 7월 19일 창설되었다. ‘한번 해병이면 천국까지 해병’이라는 다짐 아래 계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비역 기독 해병들이 주님 안에서 친교하며 현역 및 예비역 해병대 장병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대 회장은 영락교회 김윤근 은퇴장로(예비역 중장)가 역임하였으며, 서울 시내 여러 대형 교회를 비롯한 전국에 지회를 두고 있다.

영락교회 해병선교회 회장은 정문식 은퇴장로가 맡고 있으며, 총무는 김광수 은퇴안수집사가 수고하고 있다. 매월 첫 주 3부 예배 후 일정한 장소에서 월례회를 갖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기쁨을 회원 간에 나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자 한다.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해병대 가족이 해병선교회에 함께 하기 바란다. **안녕**

총무 김광수 은퇴안수집사 / 010-8789-0008

영락교회와 영락농인교회사



영락농인교회 기공예배(2002년 4월 11일)

영락교회와 영락농인(聾人)교회는 선교역사적으로 중요한 관계이다. 1946년 10월 11일 박윤삼 전도사가 농인 6명과 청인 2명으로 베다니 3층에 ‘농아인 전도부’를 창립한 것이 영락농인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72년 전 영락교회에서 농인들이 예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박윤삼 전도사의 요청을 한경직 목사가 수락하여 이루어진 일로, 당시의 여건이나 사회분위기에서 농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해준 영락교회의 결정은 장애인선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직 독립 교회의 여건이 되지 못한 농아부는 처음에 농아전도부라는 명칭으로 영락교회의 한 부서로 운영이 되었다. 1950년 1월 1일, 계기훈, 박두철, 김춘자, 유수희, 주정희 성도가 한경직 목사에게 농인으로 처음 세례를 받았다.

6.25전쟁으로 농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박윤삼 목사는 1954년 3월 20일 서울로 돌아와 ‘농아인전도부’를 ‘농아부’로 개칭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청년면례회가 재발족 되어 농아부는 예전 상태로 회복되었고, 1955년 농아부부장으로 백경보 장로, 1956년에는 부감으로 장병희 집사를 임명하였으며 점차 농아부가 다시 부흥하였다.



안일남 장로
영락농인교회

이후 농아부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권한을 위임받고 독자적으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락교회 당회에 특별위원회의 설립을 청원하였다. 농아교회 당회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승인함에 따라 1964년 12월 6일 농아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농아부 부장 김병은 장로, 부감 문영진 집사, 박윤삼 목사, 안경애 전도사, 계기훈 집사, 박두칠 집사, 이진구 집사 등 7명의 위원이 구성되었다. 1975년 4월 농아부가 농아교회로 승격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예배위원회’로 개칭하였고, 영락교회는 ‘농아교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아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계속 관심과 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농아교회로 승격되면서 마침내 1977년 1월부터 성례전 집행권을 영락교회 당회에서 완전히 위임받아 농인교회 목사가 직접 수어로 성례전을 집전하였다. 영락교회 교육관 4층에서 드리던 농아부 예배는 영락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영락농아인교회 이전 문제를 논의하여 행촌동 독립문성결교회 예배당을 매입하였다. 1985년 1월 20일 행촌동, 사직터널 입구에 ‘영락농아인교회’ 현판을 걸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한경직 원로목사의 말씀과 정유균 장로의 교회 열쇠 인계인수 등 진행되는 순서마다 뜨거운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농아인교회의 이전을 위해 농인들도 나름대로 현금을 하였지만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었다. 영락교회의 결단으로 예배당 건물 구입을 결정하여 농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은 특별한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된다.

1989년 10월 서울노회에서 영락농아인교회의 가입이 가결되었다. 이후 영락농아인교회는 2001년 10월 25일 서울노회에서 ‘영락농아인교회’로 명칭 변경을 승인받았다. 변경의 이유는 농인들은 자신들이 ‘농아인(聾啞人)’보다는 ‘농인’ 즉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원했기 때문이다. 협소한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고자 농인들은 건축현금을 모았으며 새 성전 건



1965년 영락교회 농아부 내 고등부 졸업 기념사진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한경직 목사 설교 때 박윤삼 목사가 수화로 통역하고 있다.



3대 농아부장을 역임하신 김병은 장로님(사진 오른쪽)



2015년 9월 영락농인교회 대성전에서 위임예배를 드렸다.

축 관계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으로 예배처소를 옮겨 예배를 드렸다. 어렵게 시작한 교회 건축은 농인 교인들이 각각 교회건축적금통장도 만들었고 기도와 물질로 노력하였으나 농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영락교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장로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교회 건축을 마쳤고 2003년 12월 12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창립60주년을 맞은 2006년 10월 15일, 빚을 모두 청산하고 감격의 현당예배를 드렸다.

영락교회와 영락농인교회는 한 올타리에서 39년을 동고동락한 믿음의 형제다. 농인교회 성도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뿌리를 지닌 한국의 대표적 정통교단으로 청인사회와 농인사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되었다. 농인교회는 당회장으로 두 분의 청인인 박윤삼, 문영진 목사를 거쳐 세 분의 농인인 강주해, 손천식, 김용익 목사로 이어져 현재 5대에 이르고 있다. 통일의 그날 이북에 농인교회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건축현금을 모으고 있다. 특별히 문영진 목사는 농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국내 및 해외에서 농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후배 신학생 및 농인 목회자를 양성하였고 병중에도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 농인들을 사랑으로 사역하다가 별세하였다.

2015년 9월 김용익 목사가 부임한 영락농인교회는 영락교회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의 빚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선교에 있다. 한국의 30만 농인들 중 겨우 7,000여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미선교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영락농인교회는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한다. **만남**

* 필자 안일남 장로는 1972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농인교회를 출석하였으며 현재 영락농인교회 6명의 시무장로 중 유일한 청인(聽人) 장로이다.

어르신들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야고보서 1:27)

1939년 신의주 제2교회 한경직 목사가 고아 소녀 ‘복순이’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영락사회복지재단’의 뿌리이다. 1957년 영락교회가 중심이 되어 재단법인 ‘영락원’을 설립하여 영락보린원, 영락경로원, 영락모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1990년에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으로 명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는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소속된 여러 시설 중 영락노인전문요양원(원장 최영순)을 찾았다. 최근 옥상 증축 등으로 입소 인원이 늘어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6월 중 김운성 위임목사와 많은 교우들을 초청해 준공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예정이다.

취재 박진현 기자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한경직 목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한경직 목사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56-12번지에 2010년 12월 1일 문 열었으며,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가정과 같은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치매 등 중증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부양가족에게 실질적 생활의 도움뿐 아니라, 영적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힍니다.

입소를 위한 자격이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입소조건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을 받으신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4·5등급을 받으신 분 중 ‘시설급여(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 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요양시설의 지원을 받아야 함)’ 판정을 받으신 분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 희망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하남시청에서 입소의뢰서가 오게 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인원과 근무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입소인원은 74명입니다. 최근 옥상증축 후, 10명 정도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확보된 덕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추가되면서 최소 33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워요. 우리 요양원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달리 요양보호사가 충되지 못하면 어르신들이 입소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이 급합니다. 요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많은데 일의 강도에 비해 급여수준이 다소 낮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보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과 복리후생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일하며 즐거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는 어떻게 준비되나요?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7시 45분에 예배가 끝나면 아침체조(낙상제로운동) 후에 바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삼시세끼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요. 과거에는 직접 식당을 운영했는데, 고령화 사회로 간다보니 조리원 수급도 어려워지더군요. 현재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와는 매주 식단과 영양,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은 혹시 입소 희망 시 혜택이 있습니까?

현재 영락교우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 원은 한경직 목사님의 이웃사랑 정



신의 실천을 위해 모두가 공정한 입소 신청절차를 통해 입소하시게 됩니다. 여기는 주변 환경이 좋아 입소 희망 대기자가 현재 400~500명 정도입니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에 입소 희망 대기자를 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원에 간호인력이 4명(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있어서 간단한 처치는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하신 어르신은 병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 환경이 워낙 좋아,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병원보다는 그냥 여기에 계시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양사가 어르신과 1:1 돌봄이 아니라 기 때문에 위험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뇌경색 등 질병 시 낙상 사고 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돌출행동으로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식사를 하십니다. 주일은 임평호 목사가 방문해서 1시 30분과 2시 30분,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 ‘3세대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악구에 있는 ‘합실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락교회 수요예배 참석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어르신들과 영락교회와의 끈(인연)을 계속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요양원 원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영락교회 교우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락의료법인’을 설립해서 호스피스 병원, 요양병원, 더 나아가 실버타운이나 장례시설 등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청춘을 바치고,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믿음의 벗들과 함께 천국소망을 꿈꾸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교회가 함께 해 주는… 상상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봉사나 후원을 희망하는 영락교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영적 교감을 나누며,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또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천국을 향한 행복한 마지막 발걸음을 위해, 이곳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하고 돌보아 드리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영락의 교우들께도 늘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경직 목사님의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의 소망이라 믿습니다.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이름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요구하거나, 봉사보다 자신들의 커뮤니티 친목을 위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중히 사양하고 싶습니다. **만남**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남진 장로)이 지난 4월 8일(주일) 영락교회 베다니광장에서 ‘어깨 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나눔의 주인공은 나야나!)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수고와 기도 가운데 후원했다. 가슴으로 화답하며 후원을 신청해 주신 신규가입 200명, 재가입 44명, 증액 34명 등 총 278명의 교우가 이번 캠페인의 나눔 주인공으로 함께했다. 또한 ‘카카오플러스 친구’로 영락사회복지재단과 친구 맺은 교우들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잠자는 동전을 깨워서 모아온 소중한 손길도 있었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모인 이날의 작은 손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개 시설을 후원하게 된다.

귀한 결단으로 후원에 참여한 교우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전 세대와 함께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는 ‘나눔과 섬김’의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



생명을 전하는 사랑부 창립 20주년 예배



4월 22일 주일에 사랑부 창립 20주년 행사가 베다니광장에서 있었다. 1998년 4월 셋째 주일에 창립한 사랑부는 연약한 자를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서로 발달장애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날 기념사진전을 비롯하여 ‘사랑’으로 2행시 짓기 행사, 축하메시지, 그리고 기도문을 쓰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주말제자학교, 연극예배 등 사랑부 학생들이 예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돋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짜임새 있게 소개했다. 설문지 작성률을 통하여 사랑부가 어떠한 단체인지 교우들이 이해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설문 속에 교사로 섬기는 이들을 추천하는 항목을 마련하여 함께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교우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사랑부에서 직접 만든 수제 비누도 받고 다과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다.

취재 목진경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하하 호호 사이좋은 우리 교회 어린이날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영·유아·유치부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24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를 개최했다. 700여 명의 영락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하하 호호 사이좋은 우리 교회(요일 4:11)’라는 주제로 베다니홀에서 신나는 찬양과 율동, 예배,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이 펼쳐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이후에 진행된 ‘씽씽, 랄라, 둉둥, 승승, 팡팡, 훨훨, 압압’ 등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눔을 체험하고, 스스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기쁘고 신나는 은혜의 잔치를 함께했다.

영·유아·유치부에 속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 ‘웃음 가득한 사이좋은 교회’ ‘사랑 넘치는 화평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나가기로 다짐하는 신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만끽했다.(관련화보 65쪽)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어린이 주일 예배, 45명 유아세례 받아



지난 5월 6일 주일예배는 어린이주일 예배로 드려졌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아들에게 보여준 것 (신 28:1~6)’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지 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을 비우고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 부모는 “순종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오늘의 이삭”이 되기를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본당에서 ‘유아 세례식’이 거행됐다.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유아세례식에서 2주 동안의 부모교육을 수료한 부모들은 총45명의 “어린 생명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양육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스승이 되기로 서약”했다. 특별히 이날 유아 세례식을 마친 뒤 김운성 위임목사는 직접 세례를 받은 자녀를 안고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념사진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18 전교인전도주일, 교구 교역자와 면담 후 새가족 등록



4월 29일 ‘2018 전교인전도주일(구 총동원전도 주일)’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교인 전도는 우리 주변의 전도대상자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 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5주간 5단계의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1주차는 전교인 전도 선포, 2주차는 전도대상자 작성, 3주차는 기도하기, 4주차는 사랑의 표현, 5주차는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는 일정이었다.

전교인전도주일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닭이 먼저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남은 삶은 우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베다니광장에서는 자리를 마련해 전도대상자들을 환영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가족주일, ‘사랑愛광장’ 축제 한마당



5월 13일 가족주일이자 어버이주일을 맞아 2부~4부 예배가 가족주일 전세대예배로 드려졌다.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던 자녀들이 2부(중·고·사랑부), 3부(영·유아·유치부), 4부(유·초·소년부, Cebc)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는 특별예배였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그 어머니들(민 13:1~16)’이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 자녀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배 중, 3세대가 드리는 기도와 봉헌송, 단막극 ‘혜원이네 집’ 등의 순서는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베다니광장에서는 ‘사랑愛광장’ 축제가 열려 캘리그라피(협찬 청현재이), 핑거페인팅, 다짐나무 등 다채로운 마당행사가 진행됐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은퇴안수집사회, 구순·팔순 감사예배



은퇴안수집사회(회장 박호전)의 올해 구순·팔순 감사예배가 지난 5월 2일(수) 낮 12시 한경직목사 기념관 지하에서 있었다. <구순(1명): 안영근>, <팔순(8명): 전인호, 이진호, 김동구, 윤재학, 허환, 민영복, 한문환, 유세종>

45명의 회원들과 교회 기관·단체장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감사예배는 한현수 지도목사의 인도로 박성만 장로(1남 중앙회장)의 기도,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 박순태 장로의 축사 등으로 이어지면서, 3여중창단, 바요나중창단과 송민영 자매(베다니찬양대)가 특별연주로 나와 시종 은혜 충만한 축하연이 됐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몰랐던 한 가지’(출 1:8~14)란 제목으로 ‘강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며, “비록 나이가 들었더라도 긍정적인 사고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120%의 열매 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제공 은퇴안수집사회



권사수련회 개최, 공감의 사역자와 상담자로서 권사



감의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박규성 목사의 인도로 통성기도를 한 후, 축도로 1부 경건회를 마쳤다.

2부 특강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제목으로 열정적 인 강의를 펼쳤다. 한 교수는 심리 상담가로서 상담 사례와 성경 이야기를 접목하여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삽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상담자였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전했다. 이어 권사회가를 부른 후 이어진 3부에서는 식사와 지회별 친교시간을 가지며 은혜의 수련회를 가졌다.

제공 권사회

남선교회 만남의 날, 제1~4남선교회 연합 지회의 날



지난 4월22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남선교회 만남의 날’이 열렸다. 제1남선교회부터 제4남선교회까지 많은 회원들이 부스를 찾아왔고 김운성 위임목사의 격려 방문과 여전도회의 뜨거운 후원으로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1~4남선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영락 믿음의 선후배간의 따스한 친교를 나눴고 성도들에게 남선교회를 소개하고 새회원 등록을 받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공 제2남선교회



국제기독교학교협회(ACSI) 세미나 영락교회에서 열려



영락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선교부는 4월 25일(수)~4월 27일(금)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501호에서 열린 국제기독교학교협회(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가장 큰 세계기독교 학교 협의체로 알려져 있는 ACSI의 국제담당 부총재(Michael D. Epp)를 비롯하여 7개국 위원들이 소규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보성학원 이사장이기도 한 선교부장 정천우 장로는 영락교회 설립 배경, 영락교회가 세운 3개 학교법인과 법인 소속 8개 학교 및 선교사를 통해 해외에 세운 8개 학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 대표는 영락교회가 그들 나라에 세운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반가워했다.

2013년도에 영락·보성·대광학원 교목들이 미국 콜로라도 ACSI 본부를 방문한 바 있다. 학원선교 담당 임대순 목사와 학원선교팀(팀장 신영순 권사)이 세미나내내 그들을 도왔다.

제공 선교부 사진 설경문 집사

어버이를 위한 감사음악회 형제가 연합하여 드린 연주



지난 5월 12일 베다니홀에서 호산나찬양대(대장 김태영 안수집사)와 영락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김지연 장로) 공동 주관으로 '어버이를 위한 감사음악회'가 열렸다.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연합연주에서 호산나오케스트라와 영락 남성코랄팀인 조이플씨너스가 함께 무대에 올라 약 150여 명의 연주자가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를 이뤘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어버이를 위한 감사음악회'는 약 500여 명의 관객과 부모님을 초대해, 호산나찬양대와 영락청소년오케스트라부터 청·중·장년 남성교우들로 구성된 조이플씨너스의 무대까지 세대를 넘어 부모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표현하며, 감동적인 연주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감사카드를 부모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풍성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서울승실 재건기념 감사예배 및 승실 기독인 비전선포대회



‘서울승실 재건 64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승실 기독인 비전선포대회’가 지난 5월 10일(목) 오후 3시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인도한 서울승실 재건기념 감사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예레미야 1:4~8)’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승실대학교는 1897년 윌리엄 M. 베어드(배위량 박사) 선교사가 평양에 ‘승실학당’을 설립하고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자진 폐교를 단행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민족대학’으로 한경직 목사에 의하여 1954년 5월 10일 ‘서울승실’로 재건됐다.

이날 승실기독인 3대 비전선포를 통해 ‘승실기독인 신앙 선언문, 승실기독인의 통일 사역과 평양 승실 재건 선언, 승실대학교 대학교회 설립 취지문’을 낭독하며 통일시대에 승실기독인의 사명을 선언했다. 또한 ‘1,200 통일 거점교회’를 선정하고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 북한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전달



지난 4월 26일 영락교회는 북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 후원금 2,000만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월드비전은 국제적으로 여러 구호사업을 진행해 오는 가운데 특히 북한사업으로 1994년부터 식량, 의약품, 옷,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자 공급을, 1997년부터 식량, 농업생산을 위해 북한 파트너와 협력을, 1998년부터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업개발사업을, 그리고 2009년부터 농업, 보건 의료, 식수위생, 교육, 주택 등의 통합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사순절 고난주간에 영락 교우들의 현금으로 조성되었고, 주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에 사용되며, 밀가루 600톤과 빵과 국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제공 행정처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4월 1일~5월 4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4월 1일	윤준영	80	888
	김은정	80	888
	강하은	80	888
4월 8일	윤재길	13	009
	장순자	13	009
	박금숙	04	014
	한인수	14	050
	최의순	09	058
	이유성	10	000
	이정희	06	065
	홍예담	03	029
4월 12일	박주원	15	004
	김태강	04	052
4월 13일	모사랑	08	006
4월 15일	성승제	04	007
	이지영	01	023
	김윤이	01	045
	이지현	09	010
	김세인	13	014
	윤향미	03	046
	원동연	04	067
	진미	07	017
	정예권	01	045
	임시온	07	014
	박은상	15	027
	윤설	10	043
4월 18일	이주하	16	047
4월 19일	예하준	05	024
4월 22일	김용현	03	047
	원희영	02	000
	김명학	01	016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4월 22일	한윤실	02	000
	양재모	11	043
	장주향	03	020
	손우진	07	060
	표하빈	12	001
	조서연	02	055
	조하연	02	055
	최예솔	10	039
	김혜나	08	020
	김민재	01	040
	강지호	01	016
	홍하은	10	028
4월 29일	하예린	05	061
	문하민	11	010
	최로희	13	024
	박하린	14	033
	엄유정	04	052
	이종호	18	000
	성기모	08	000
	최광원	01	046
	최정원	10	000
	고현숙	11	006
5월 4일	유현종	05	000
	구본이	14	044
	정연우	10	000
	김찬희	12	014
	이수아	04	056
	이은결	04	046
	최아델린리아	11	024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이름	교구	구역
황서현	18	017
조희주	18	035
유소담	06	021
김하율	04	018
백지민	08	006
박시연	05	028
유하늘	06	048
유사랑	06	048
김태현	16	006
정재윤	08	024
김하엘	08	045
신소은	14	004
김서한	06	012
강루나	03	003
박건후	01	015
박지후	10	026
김서원	17	054
최서진	04	098
정은혁	09	024
김태온	06	003
김태율	06	003
황주원	15	029

유아세례일(5월 6일)



이름	교구	구역
한은봄	01	026
김주은	03	014
박주원	15	004
김태강	04	052
정예권	01	045
윤설	10	043
박은상	15	027
임시온	07	014
이주하	16	047
예하준	05	024
박하린	14	033
홍하은	10	028
강지호	01	016
손우진	07	060
조서연	02	055
조하연	02	055
하예린	05	061
김혜나	08	020
표하빈	12	001
최예솔	10	039
김민재	01	040
문하민	11	010
최아델린리아	11	024



영락역사자료

4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강용진 암수집사 (강동·송파교구)	4/1	1980년~1988년 박조준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48건 1991년~1996년 임영수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4건 1992년 한경직 목사 설교 외 기타행사 관련 일반음성테이프 32건
장경미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4/8	1992년 대학부 주보 외 일반문서 6건 1992년 대학부 간행물 1건
황규도 집사 (인천교구)	4/15	1993년~1994년 주보 합본 2건 1993년~1995년 '영락 청년' 합본 3건
장경미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4/22	2008년 3월 2일 IWE 국제 예배 순서지 1건 2008년 5월 선교부 소식지 '땅끝' 봄 창간호 1건
이혜영 권사 (서초교구)	4/22	1976년 영락교회 직원신년하례식 사진 외 기타 행사 관련 인화사진 건 6건 1994년 7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사진 외 유치부 활동 관련 인화사진 20건 1980년 제 14회 집사 암수식 사진 외 선교 활동 관련 인화사진 3건
최성보 은퇴권사 (노원교구)	4/25	1981년 5월 10일 전도요원 제 27기 A전 훈련 과정 증 1건 2000년 12월 31일 의정부 영락교회 감사패 외 1건 2012년 시온찬양대 부활절 음악예배 팜플릿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토요음악회 1회 문서, 사진, 포스터 등의 사료

2. 1960년도 이전 사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목회력

6月

1일(금)	연합권찰공부
3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0일(주일)	제직회
17일(주일)	새가족환영회
20일(수)~24일(주일)	북한선교대회
22일(금)	심방준비회
24일(주일)	북한선교주일, 사회봉사주일
29일(금)	금요권찰공부 전반기 종강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겨우내 죽은 것 같던 나뭇가지에서 연한 순이 돌아난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 마른 땅에서 연녹색으로 어김없이 오롯이 올라오는 새싹, 마을 뒤의 작은 동산도 어느새 푸르고 힘찬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정확한 때와 아름다운 섭리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50주년기념관 로비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린 김정자 은퇴권사의 그림이 걸려있다. 첨첨이 늘어서 있는 산속에서 생명의 움직임이 바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수줍게 피어나는 연분홍의 진달래도 보이고 여러 종류의 새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다.

작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꽃이 지면 신록의 계절이 오게 된다. 산이고 들이고 곳곳마다 창조의 날이 지나 수많은 날들이 지나도 아직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을 단순화 시킨 풍경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미이며 찬가”라고 이야기한다.

익숙하게 늘 거기에 걸려 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그림을 보면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작가의 신앙 고백에도 귀를 기울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길 바란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의견

- 영락의 얼굴과도 같은 「만남」. 지난 50년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지난 12월호 44쪽 「개혁(改革)」이란 한문풀이였다. 영락의 수준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되고 표지 뒷면 명화도 Very Good! 진정인 권사(동대문·중랑교구)

▶ 독자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6월호
통권 533호

편집위원회

만남편집소위원회 |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현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생각나시죠? 이달 ‘만남의 초점’에 담긴 우리 어린이들 모습 말입니다. 요즘 저는 그 모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연한 새순 같은 눈길’, ‘높은 곳을 향한 손길’, 그 모습이 늘 제 마음에 잔영으로 남아 있어,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 ‘야곱의 시대’를 꿈꾸며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영락교회 곳곳에서 최근 일고 있는 ‘내적 전도’ 현장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달 특별기획에 실린 6교구 9구역 구역예배 이야기 생각나시죠? 더구나 그 소식을 카메라로 담아낸 사진작가분들도 얼마나 전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면서, 바로 영락의 꽃들, 우리 어린이들 모습을 이달 ‘만남의 초점’으로 포착한 유승현 성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두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절로 윤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라는 특별기획 주제로 ‘전교인 전도에 나서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신앙의 본’이 되어 정성으로 돋는 전도, 여러 이유로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믿음의 교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 교육부 ‘징검다리-연계 사역’처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도중에 이탈하는 교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양육하고 돌보는 전도, 이러한 소식들입니다.

교회 안 곳곳에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예수 사랑의 편지가 되는 내적 전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 면면히 계승해오고 있는 ‘나라 섬김’도 바로 여기, ‘내적 전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요?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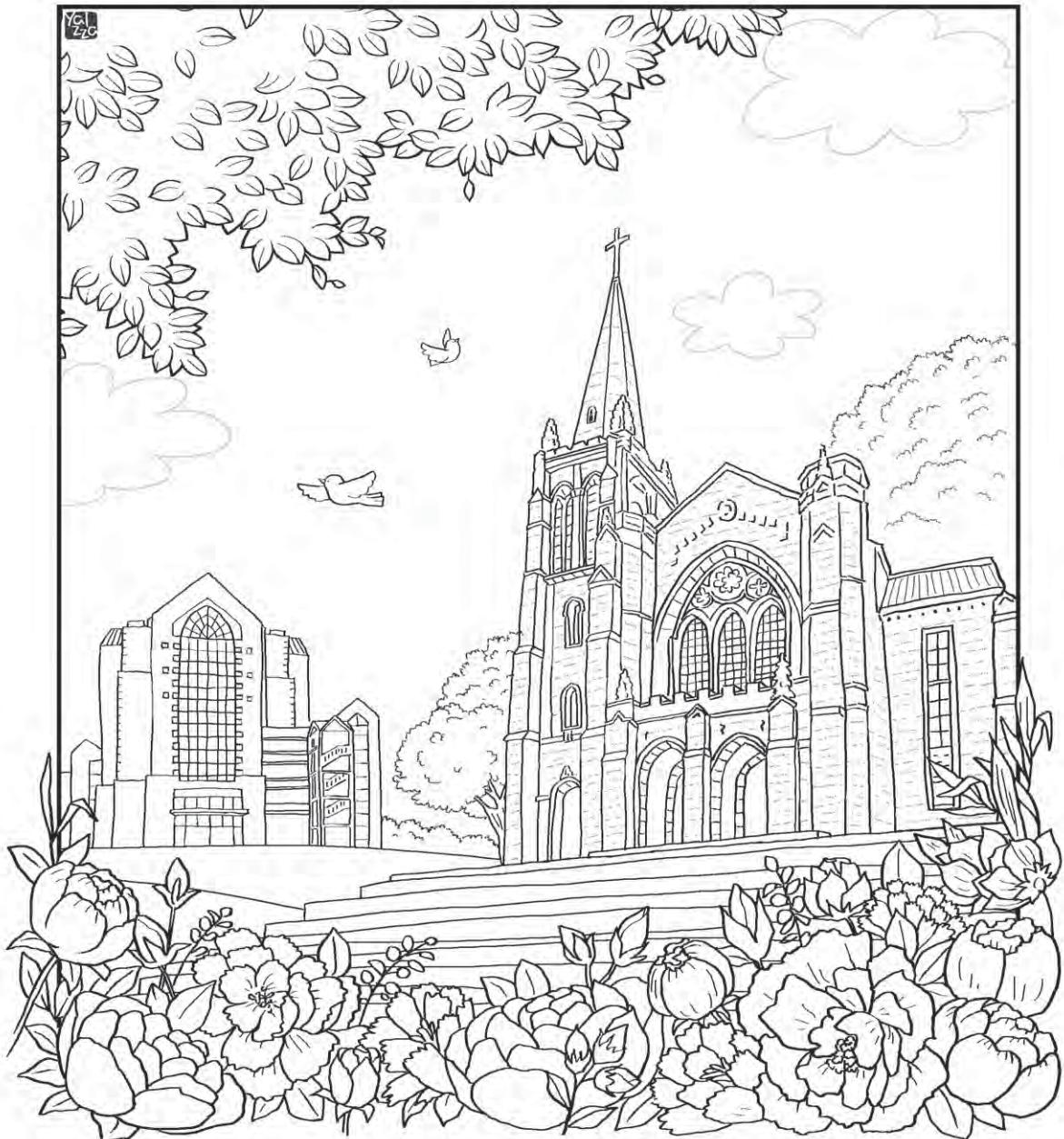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컬러링 콘테스트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과 50주년기념관을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해보세요. 홍보출판부(봉사관 503호)로 원본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이메일(youngnak-hb@daum.net)로 6월 24일까지 보내주시면 좋은 작품을 골라 상을 드립니다.

이름 : () 연락처 : ()



본당 1949년 3월 24일 본당 신축기공을 하고 1950년 6월 4일 입당예배를 드렸습니다. 1978년 5월 십자형으로 증축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설계 박동진.

50주년기념관 1997년 11월 2일 입당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로 선교관, 목양관, 베다니홀, 드림홀 등이 있습니다. 설계 정시춘(정주건축).

야곱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영락의 꽃들

- 5월5일(어린이날)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모습



영락화랑

아름다운 목상



김정자 은퇴근사(종로·성북교구)
(유화, 1992년작, 2011년 기증, 493cmx160cm)

하나님의 칭조의 세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50주년기념관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아름다운 유물가〉 칭조